

“주말 아빠와 함께 요리 배우니 너무 신나요”

동구 보육캠페인 ‘요리 교실’

18가족 참여 큰 호응

“엄마 생일상 차려 드릴 거예요”

“아빠와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보니 재밌었어요.”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장동 자비신행회 1층에서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깔깔거리는 웃음이 들렸다. 각 테이블을 차지한 어린이들과 성인 남성들은 서툰 칼질로 양파와 당근을 썰고 숟가락으로 계란을 저으며 거품을 내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사진>

미역국을 끓이던 어린이들은 아빠에게 소금을 건네 받아 간을 맞추며 끝까지 요리를 완성시키는 모습이었다. 계란말이를 아빠들과 어린이가 모두 쉽지가 않았지만 강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만들 수 있었다.



광주시 동구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없는 도시1번지’ 보육캠페인의 하나로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요리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동구에 주소를 둔 아빠와 아이 18가족이 참여해 함께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맛보고 설거지까지 하는 체험활동으로 꾸며졌다.

요리는 미역국·달걀말이·멸치볶음이 차례로 주어졌다. 미역국 끓이기는 아빠와 자녀가 엄마 생일에 직접 끓여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은 나들이용과 보관이 오래가는 마른반찬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주아 어린이는 “요리 체험도 재미있었지만 아빠와 들어서 주말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며 “배운 대로만 하면 엄마 생일 때 미역국은 자신 있게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아빠와 아이가 요리를 함께하는 등 가족끼리 서로 시간을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독박육아를 없애고 양성이 평등한 육아분위기 확신을 위해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모범사례들을 하나둘씩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



‘목포, 레트로 여행’의 관광지인 연희네 수퍼.

남도의 봄꽃 향연 제대로 즐겨 보세요

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봄 여행주간 이색 프로그램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9년 봄 여행주간(4.27-5.12)을 맞아 전남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꽃 향기, 북고 감성이 가득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전남 방문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대표 관광지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 및 관광 관련 트렌드 등을 고려해 여행주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는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순천의 생태·정원 도시 이미지와 봄 나들이를 연계한 ‘남도의 봄, 피크닉 여행’을 운영한다. 박송희 자연음식연구가가 제안하는 꽃밭 도시락&꽃차(또는 에이드)를 직접 만들어보고, 피크닉 바구니를 대어하며 봄 향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이색 피크닉을 체험할 수 있다.

목포시 연희네수퍼 및 근대역사문화관 일대에서는 2019 대한민국 트렌드인 ‘Newtro’(New와 Retro의 합성어, 복고로 새롭게 즐기는 경향)와 목포의 근대 관광자원을 연계한 ‘목포, 레트로 여행’이 운영된다. 연희네의 이상실, 연희네 사진관, 연희네 음악다방 등을 통해 근대의상 대어, 사진촬영, 옛날 도시락 등 다양한 복고 콘텐츠를 체험하며 1980년대의 정취를 현재의 감성으로 다시금 느껴볼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여행주간 홈페이지(travelweek.visitkore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이태호 지사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브랜드 확립 및 관광객 만족도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 운영이 전남 관광의 매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율성 유적 재정비·기념사업 추진”

이용섭 시장 시립오페라단 오페라 ‘망부운’ 관람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 29일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을 57년만에 무대에 올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용섭 광주 시장이 정율성 선생의 딸인 정소제 여사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

오페라 ‘망부운’은 1962년 중국 북경극립오페라단에서 초연된 후 중국의 2017년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과 함께 ‘망부운’ 복원 작업을 시작되었고, 정 여사는 그동안 갖고 있던 아버지 정율성 선생의 유품인 ‘망부운’ 악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6개월 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복원 작업에 참여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이 작품을 앞으로 광주 대표 브랜드오페라로 키워낼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 ‘망부운’ 공연 관람에 앞

서 정 여사를 만나 “아버지의 고향인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지역 출신의 항일운동가이며 중국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대작을 광주에서 다시 공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 여사는 “아버지의 고향은 곧 저의 고향이기도 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망부운’을 통해 정율성 작곡가를 기억하고, 광주를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취임 이후 정율성 선생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생가를 방문했는데 너무 초라해서 많이 부끄러웠다”며 “광주시 주도로 관련 유적들을 재정비하고, 정율성 기념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중국인들이 정율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광주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구 91명 증원 대대적 조직개편 착수

광주 첫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광주시 남구가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1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기구수를 자율화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남구는 관련 규정 제39조에 근거해 남구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남구는 4월까지 부서 신설과 함께

인원 91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의 적정성 등을 파악해 남구의 특성을 살린 조직개편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내 남구청장은 청와대 행정관 근무시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실현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시설 단계적 개선

광주시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지식 함양을 위해 1998년 개원한 광주어린이교통공원 내 교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교통분야 전문교육기관인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전교육은 북부경찰 소속 경찰관이 전담하고 어린이안전학교 회원 5명이 안내와 질서유지 등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안전 기초지식과 스스로 횡단보도 건너기, 시내버스승하차, 지하철 탑승, 자전거주행 등

교통질서지키기 등이다.

광주시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식 교육시설 등을 손보고 있다.

지난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해 건물외벽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공사, 어린이 휴게실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 일부 보충했다.

올해는 어린이 선호 교육시설인 교통안전 체험용 미니열차를 7월까지 현대식 전기기관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에는 교통안전 체험관을 전면 리모델링한다.

한편, 광주어린이교통공원 내 교육시설에는 지난해 2만4987명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녀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세 미만 아동수당 매월10만원씩 지급

광주시 이달부터...소득수준 관계 없이 7만여명 대상

광주시가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코자 지난해 신설한 수당으로, 4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내 7만여 명의 아동에게 준다.

광주시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을 위해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보편지급 대상아동 5500여명 중 4200여명이 신청처리돼 76%의 신청률(3월22일 기준)을 기록했다.

보편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은 1월15일 개정 공포된 이후 4월1일 법 시행

전까지 신청해야 1월부터 3월분까지 수당을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법 공포 이전)에는 아동수당을 신청해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제외된 아동의 경우는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므로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 광현미 여성가족정책관은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면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3월 말까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등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아동수당 소급 지원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미신청자 신청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